

도 협 소 식

제 1 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75년 4월 10일 오후 4시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제1세미나실

안 건 : 1) 사무국보고

- 2) 제10회 도서관 주간행사에 관한 일
- 3) 제4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에 관한 일
- 4) 도협 20년사 편집 계획에 관한 일
- 5) 회비 재조정에 관한 일
- 6) 전문위원회 위원장 위촉에 관한 일
- 7) 기 타

참석자 : 전무이사 이 봉순

이 사 권 양원, 김 남석, 김 덕훈, 김 윤배
 서 장석, 박 계홍, 유 동열, 이 철규
 정 병완, 조 재후, 조 창환
 감 사 김 해룡, 박 회영

<회의내용>

박대권(사무국장) : 성원 보고하다.

—신임 이사들이 각자 인사 소개하다—

의 장(전무이사) —회의 개최전에 전무이사로서의 신임 인사를 하다— 그러면 성원되었음으로 차1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사무국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대권(사무국장) 유인물에 의하여 사무국보고를 상세히 보고 설명하다. 아울러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 추진경과 보고를 하다.

의 장(전무이사) 사무국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철규(이사)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개회에 따른 예산확보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대권(사무국장) 동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금년도 부터 여러가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동총회 개최의 결정이 작년 11월 즉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되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부득이 정부예비비나 혹은 추정예산에 반영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하여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사정

이 매우 어려운것 같아서 예산확보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말씀 없으신지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동의하다—

박대권(사무국장) 제10회 도서관주간행사 실시에 대하여 유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설명하다.

의 장(전무이사) 도서관주간이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도 정해져 있고 이사회의가 오늘에서야 개최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사회에 부의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우선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 이미 각도서관에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추진하는 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다—

의 장(전무이사)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대권(전무이사) 제41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는 오는 8월에 오스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내년도 총회에 대비하여 대표들이 많이 참석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의 선정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의논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내용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설명하다).

박계홍(이사)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의 장(전무이사)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상의해야할 사항은 금년도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교환하다—

의 장(전무이사) 이상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셨으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석(이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임하도록 하되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의견교환 되었던 것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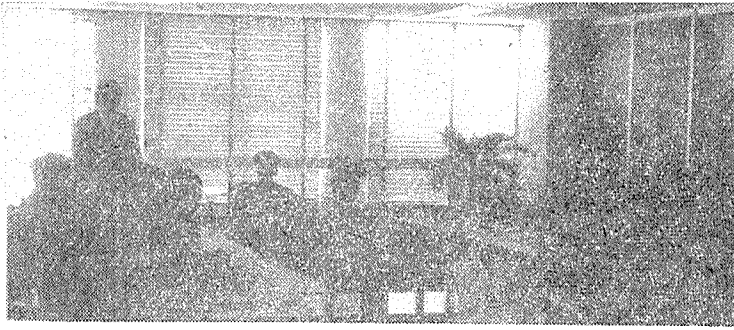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하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동의안을 채택해도 되겠습니다.

—전원 동의하다—

의 장(전무이사) 그러면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는지 추천하여 주십시오.

조재후(이사) 소위원으로서 회장 전무이사 박 계홍 이 철규이사과 전문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을 추천합



제1 차 이사회의 광경

니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추천명단대로 결정해도 되겠는지요.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다—

이철규(이사) 연맹에 준회원으로 가맹된 단체에서는 준회원의 자격으로 별도로 연맹과 접촉하도록 하고 그 외만 협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야 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해서는 행동을 동일하게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전으로 도협 20년사 편집계획에 관하여 하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안전설명을 상세히 하다.

의 장(전무이사) 이 문제는 우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장석(이사) 편집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문제는 앞으로 전문위원회도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니 다음 이사회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다—

의 장(전무이사) 다음 안전으로 회비 재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회비 재조정에 관한 문제는 지난 정기총회시 총회의 처리안전을 평의회에 위임하였으며 평의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중 신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회비를 재조정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회비 인상문제는 현재의 회비액이 과거 몇년전에 책정한 것으로서 비현실적인데다가 협회의 재정이 어려워 회비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회비가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미납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안은 학교도서관은 인하였고 다른 도서관은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유인물을 각 이사에게 배부하다) 그리고 개인회비도 인상한 것입니다. 이 조정안대로 하면 학교도서관은 인하여 미납회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회비 인상으로 인한 세입액 증액 추산은 대략 27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하다—

유동렬(이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고 연구하여 만든

조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 채택되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분 없으신지요.

—전원 이의 없이 원안 통과시키기를 동의함—

의 장(전무이사) 회비 재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남석(이사) 현 회원은 76년도부터 물론 적용이 되지만 신입회원에 대하여서는 조정안대로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게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 채택되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 장(전무이사) 그러면 평의회에서 본이사회에 위임한 회비 인상 및 등급재조에 관한 일이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조재후(이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5월부터 심의되기 시작하므로 속히 각 회원에게 연락하여 신년도 예산책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전으로 전문위원장 위촉에 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박대권(사무국장) 회장님께서 이사회에 일임하셨습니다(전문위원회 성격과 활동 범위등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하다).

의 장(전무이사) 회장님께서 전문위원장 위촉에 관한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하였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없으신지요.

이철규(이사) 전무이사께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물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하다—

의 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전원 동의안에 찬성하다—

의 장(전무이사)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전무이사인 제가 전문위원장 후보 몇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전문위원장이었던 장일세 선생님,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노옥순 교수를 추천합니다.

—이사회에서 협의 끝에 장일세씨를 전문위원장으로 위촉키로 결정하다—

의장(전무이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 일지

- ▲3월 8일 1974년도 회계감사실시
監事: 김해룡, 윤구호
- ▲3월 12일 第7次 理事會 開催
- ▲3월 18일 第21次 定期總會 開催
於: 國立中央圖書館 講堂
- ▲3월 22일 全南 地區協議會 定期總會開催
於: 全南 光州市
- ▲3월 28일 1975년도 제1차 평의원 회의 개최
於: 국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

● 신 입 회 원

<단체회원>

-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도서관
-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 도서관
- ▲한국고등교육재단부설사회과학도서관
- ▲아주공과대학 도서관
- ▲석교국민학교 도서관
- ▲전라북도교육연구원 도서관
- ▲카톨릭신학원 도서관
- ▲상지전문학교 도서관

<개인회원>

- ▲김정숙 (서울대학교 도서관)
- ▲민정자 (서울대학교 도서관)
- ▲고석준 (서울대학교 도서관)
- ▲임동빈 (서울대학교 도서관)
- ▲유효근 (한국개발연구원 도서관)
- ▲이상길 (MBC-TV 제작 2부 오락반)
- ▲김진용 (서울보건전문학교 도서관)
- ▲김성남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6-51)
- ▲정하원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 ▲김덕신 (고려대학교 도서관)
- ▲박후용 (고려대학교 도서관)
- ▲서정자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 ▲이현숙 (전국대학교 도서관)
- ▲구영애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김희정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이은철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안광태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김교갑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정찬희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김성진 (전국대학교중앙도서관)
- ▲이춘선 (중앙대학교 도서관)
- ▲우명득 (중앙대학교 도서관)
- ▲김진홍 (한국방송공사 도서관)
- ▲송중식 (광명인쇄공사 개발부)
- ▲김효정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 ▲호석왕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 ▲유인후 (국민대학 도서관)
- ▲정동희 (대검찰청 중앙도서관)
- ▲박영옥 (서울 관악구 상도동 210-293)
- ▲천순옥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44의 65)
- ▲장윤경 (서울 중구 산림동 162 대림Apt. 866호)
- ▲김정선 (서울 동대문구 창신2동 동대문맨션 Apt. 701호)
- ▲유순애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205-9)
- ▲서순자 (서울 용산구 효창동 6-59)
- ▲서정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95)
- ▲이문자 (서울 종로구 동숭동 동숭아파트 26동 508)
- ▲최영숙 (서울 도봉구 수유2동 243-7)
- ▲계홍규 (국립중앙도서관)
- ▲송영옥 (명지대학 도서관)
- ▲김창근 (대동상업고등학교 도서관)
- ▲손현숙 (서울 도봉구 수유1동 49-27)
- ▲이미옥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66)
- ▲한영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72-110)
- ▲김상열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 ▲장원두 (동명서림)
- ▲김복현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이영남 (명지대학 도서관)
- ▲박창현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권성근 (대법원 도서관)
- ▲홍복일 (국민대학 도서관)
- ▲노정순 (한국방송공사 도서관)
- ▲조도희 (FAO한국협회)
- ▲이희천 (배풍화학주식회사)
- ▲장재란 (국립중앙도서관)
- ▲김종순 (서울대 의과대학 도서관)
- ▲박말희 (건설부장관 비서실)

- ▲이 명 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서실)
- ▲한 정 숙 (농수산부)
- ▲조 혜 옥 (마루베니주식회사)
- ▲장 연 옥 (원호처)
- ▲신 영 주 (동방생명)
- ▲이 민 회 (중앙일보사)
- ▲박 춘 회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1-98)
- ▲박 정 숙 (국회도서관)
- ▲김 포 옥 (국립중앙도서관)
- ▲이 명 숙 (국립중앙도서관)
- ▲김 인 회 (국립중앙도서관)
- ▲유 선 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9-6)
- ▲이 선 우 (서울 종로구 원서동 163)
- ▲송 광 남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김 중 악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최 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오 용 근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송 인 태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 의 섭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 행 근 (한국무역협회)
- ▲김 영 진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도서관)
- ▲최 형 우 (홍원제지주식회사 도서관)
- ▲최 현 숙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50-40)
- ▲박 종 근 (서울대학교 도서관)
- ▲최 근 단 (광성기업사)
- ▲김 성 분 (인성여자고등학교도서관)
- ▲김 종 회 (경기 김포군 오정면 원정리255)
- ▲김 정 회 (경기 화성군 태안면 반정리400)
- ▲하 원 식 (충전대학교 대전캠퍼스 도서관)
- ▲조 원 호 (한국해양대학도서관)
- ▲송 경 옥 (한국해양대학도서관)
- ▲서 수 남 (한국해양대학도서관)

● 회원 인사소식

- 장 재 형 前: 월야중학교
現: 광주 충장중학교
- 유 등 안 前: 원주고등학교
現: 춘천고등학교
- 김 치 우 前: 부산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과
現: 한성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과
- 권 기 원 前: 전국대학교 도서관
現: 부산여자전문학교 도서관학과

● 신 책 교 환 도 서

韓國의 文化院 韓國文化院聯合會

- Special Libraries (74.12) S.L.A.
- American Libraries (75.1) A.L.A.
- I.F.L.A. directory (1975) I.F.L.A.
- The Quarterly Journal (74.10) L.C.
- 國會圖書館報 (75.2~3) 국회도서관
- T.L.A. Bulletin (74.3~4) T.L.A.
-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74.12)
- Monthly News of the Iranian
Library Association (74.12) I.L.A.
- 國學 資料 (第19號) 藏書閣
- National Lib. of Australia
Fourteenth Annual Report N.L.A.
(73~74)

● 배부 의뢰 도서

- 經濟論集(서울商大) <배부처 지정> 100부
- Economic Review(서울商大) <배부처 지정> 100부
- 經商論集(成大) 30부
- 녹 지(中央大) 50부
- 중앙문화(中央大) 200부
- 成均法學(成大) 150부
- 문예진흥 450부
- 청과교육(淑大) <배부처 지정> 194부
- 亞細亞女性研究(淑大) <배부처 지정> 223부
- 가정학 연구(淑大) <배부처 지정> 133부
- 나라의 예산 1,000부
- 論文集(경희대) <배부처 지정> 200부
- 새마을(1月~3月) 900부
- 論文集(국민대) <배부처 지정> 220부
- 문예진흥(3月) 450부
- 공 군(1975) <배부처 지정> 74부
-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 300부
- 사실을 바로 알자(문공부) 600부
- 남침위협 의 증거들(") 300부
- 국민투표 실시 의 의의(문공부) 300부
- 숫자로 본 경제성장(문공부) 300부
- 75년도 분야별 지정지표(문공부) 300부
- 긴급조치 제 7호의 배경(") 300부
- 인지사태와 우리의 안보(") 300부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
통령 긴급조치의 배경(") 300부
- 陸士論文集(1974) 230부
- 공군 평론 107부
- 工大學報(중앙대공대) 100부

뉴스

本協會 第21次 定期總會 盛了

本協會 第21次 定期總會가 지난 3月 18日 上午 10時 全國에서 300餘名의 圖書館人들이 參席한 가운데 國立中央圖書館 講堂에서 盛大히 開催되었다.

이런 第21次 總會는 李瑄根 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柳基春 文敎部長官의 激勵辭와 韓萬年 大韓出版文化協會長의 祝辭 그리고 吳聖植 國立中央圖書館長의 歡迎辭가 있는 후 第7回 韓國圖書館賞 施賞式이 舉行되었고 이어서 1974年度 事業實績報告와 決算 및 會計監查報告가 있었으며 1975年度 事業計劃을 確定시켰다.

이날 總會에서 李瑄根 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協會가 會員들의 積極的인 協助로 꾸준히 發展되어오고 있으나 近來에 이르러서 財政的인 어려움에 逢着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중에서도 오는 1976年度에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會議가 서울에서 本協會의 主管으로 開催기로 決定된 일은 매우 劃期的인 事實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나라 建國 以來 最大規模의 國際會議를 우리 圖書館人들의 努力으로 韓國에 誘致하였시켰다는 것은 圖書館人들의 矜持를 한층 높였으며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發展의 契機가 될 것을 確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李瑄根 會長은 協會의 財政的인 어려움을 會員들의 協助와 聲援으로 克服해 나가면서 來年度 國際會議를 위한 準備를 서둘러야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어서 柳基春 文敎部長官은 激勵辭에서 政府에서 圖書館 發展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으며 「政府의 努力도 결국 圖書館人들의 獻身的인 努力에 의하여 進行되어 왔으며 또한 成果를 거둘 수 있었으며 圖書館協會가 하나의 社會團體로서 圖書館發展을 위해 全力을 쏟고 있는 限 우리 나라 圖書館의 將來는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76年度에 서울에서 開催될 IFLA會議는 우리 나라의 圖書館 機能이 劃期的으로 擴大 發展할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을 確信한다고 말하였다.

韓萬年 大韓出版文化協會長은 祝辭를 통해서 「現行 圖書館法이 우리 現實에 符合되지 않는 點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이러한 點에 관해서는 圖書館界 自體에서는 勿論이지만, 出版界에서도 關係當局에 建議해 보았지만 現實的인 改定이 없음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總會에서 이런 懸案問題들도 學論되

기를 期待한다」고 말하였다.

第7回 韓國圖書館賞은 團體部門에서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館長 韓泰東),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館長 李鳳順) 그리고 個人部門에서 金宗會씨(홍농기계공업회사 자료관리실장) 李喆珪씨(國會圖書館 司書局長) 朴泰臣씨(토성중학교 교감) 등 團體 2個館, 個人 3名에게 各各 施賞되었다.

이번 總會에서는 20가지의 事業計劃을 確定했는데 이날 確定된 事業計劃은 ① 圖書館 長期開發 計劃 樹立을 위해 現在의 圖書館 運營의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研究, 今年안으로 圖書館 長期開發計劃書의 作成 ② 「도협 20년사」 발간 ③ 「한국도서관 통계」조사 사업 등이다.

總會는 또 定款에 따라 評議員 40名을 選出, 任員은 評議員會에서 選任하기로 委任했는데 지난 3月 28日 開催된 評議員會에서는 總會의 委任을 받아 會長에 李瑄根 博士를 만장일치로 유임시켰으며 專務理事에 李鳳順 梨花女子 大圖書館長이 選출되었고 11名의 理事와 監事 2名을 各各 選출하였다.

機械, 電子技術도서관 新設

지난 74年 12月 6日 기계, 전자기술도서관(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122-13, 관장 이춘화)이 新設開館되었다.

이 도서관은 財團法人 한국정밀기계센터의 附設도서관으로서 建坪 30坪, 藏書 4,000餘卷을 所藏하고 있는데, 정밀기계 전자관계 技能士를 養成하는 한국정밀기계센터의 學生 420餘名과 職員 190名을 奉仕 對象으로 하고 있다.

開化期 딱지本 展示

開化期의 著作 出版 概況을 말 해 주는 딱지本(一名 애기책) 展示會가 國立中央圖書館 展示室에서 지난 4月 1일부터 오는 6月 30일까지 열리고 있어 學界와 一般의 觀心을 모으고 있다.

딱지본은 鉛活字가 우리 나라에 처음 수입되어 찍어낸 책들로 筆寫本이나 木板과는 달리 울긋불긋한 표지 때문에 딱지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展示된 것은 國立博物館이 所藏하고 있던 4백 49점과 河東鎬 교수가 保管하고 있던 40점인데 일반에게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月부터는 백순제씨가 所藏하고 있는 희귀본 40점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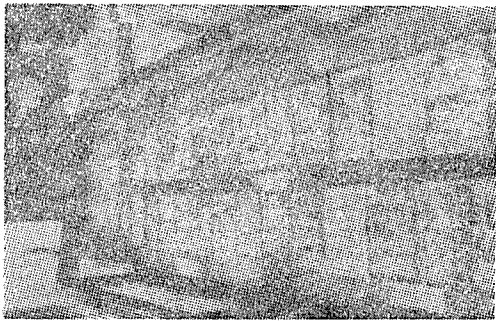
내용별로는 古代 小說이 가장 많아 2백 6種, 新小說 1백 71種, 「美國獨立史」 「中東戰記」 등 史類가 23種 傳

記類가 13점 등이다.

딱지본으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것은 史類들, 뒤를 이어 傳記類들이 나오고 新小說이 대중화함에 따라서 筆寫本이던 古代小說들도 딱지본으로 印刷되어 나왔다. 전시된 것으로는 가장 年代가 빠른 것은 1897年 學部 編輯局에서 나온 「泰西新史」 이어서 「俄國略史」「中日略史」 등이 나왔고 皇城新聞社에서도 「埃及近世史」(張志淵 著) 「法國革新戰史」 등을 펴냈다.

舊韓末의 어지러운 社會와 國家의 運命을 경고하는 뜻에서 出刊됐다는 「越南亡國史」는 玄采, 리상익, 周時經 등에 의해 각각 번역 출판됐던 점이 눈에 띈다.

國文學界의 관심을 모은 新小說들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李人植, 李海朝, 崔瓊植의 작품 외에도 劉元均, 金教濟, 朴永運, 玄丙周 등 새로운 作家가 많이 들어나 크게 주목 되었다.



(딱지본전시회)

優良圖書 展示會 開催

讀書新聞社 蔚山支社는 第1回 優良圖書 展示會를 지난 1月 27일부터 2月 5일까지 現代自動車 蔚山工場에서 開催하였다.

이 展示會에는 2,500餘卷의 各種 新刊圖書가 展示되었는데 2,000餘名의 工場從業員이 觀覽하여 冊에 대한

關心을 새롭게 했다.

이번 展示會를 主管한 讀書新聞社 蔚山支社는 讀書人口의 底邊擴大와 良書紹介를 위해 앞으로 現代造船, 三星電管 등 蔚山에 所在한 20餘個의 企業體를 巡訪하며 展示會를 계속 갖길 것이라고 한다.

準司書 資格取得 講習會 開催

國立中央圖書館은 3月 17일부터 5月 15일까지 50日間 各級 圖書館의 無資格 職員을 對象으로 資格取得을 위한 講習會가 實施되고 있다.

이 講習會는 每年 2회에 걸쳐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受講資格은 各級圖書館에서 2年 以上の 實務經歷이 있는 高等學校 卒業者 및 大學卒業者 또는 初級大學 卒業者(專門學校 卒業者포함)로 되어 있다.

이번 講習會의 受講定員은 70名이다.

韓國 書籍發刊 世界 30位

韓國의 1972年度 圖書發刊은 4,270種으로 世界 第30位임이 유엔 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의 最新 73年度 統計年鑑에 나타났다.

유네스코 年鑑은 152個國과 領土를 對象으로 삼았으며 대부분의 內容에서 北韓과 中共은 除外되었다. 지난달부터 「뉴욕」에서 販賣되기 시작한 이 年鑑에 의하면 72年度에 出版된 書籍名, 件數에 의한 世界의 書籍出版은 56萬 1千種으로 1萬名 人口當 148種에 달하고 있다.

主要國의 書籍發刊 順位를 보면 다음과 같다.

- 韓國 4,207種(第30位) ① 美國 82,405種 ② 蘇聯 80,555種 ③ 西獨 40,354種 ④ 英國 33,109種 ⑤ 日本 31,074種 ⑥ 佛蘭西 24,497種 ⑦ 스페인 20,858種 ⑧ 印度 15,157種 이다.

1975년 3월 1일 인쇄
1975년 3월 5일 발행

<월간> 도 협 월 보
제 16 권 제 2 호

발행인 리 선 근
편집인 박 대 권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
(국립중앙도서관 구내)
(우편번호 100) 전 화 (22) 4864·5613
진 체 서 울 537530
사 서 함 서울중앙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5

인쇄인 삼성인쇄주식회사